

남원 광치천서 수달 발견돼

임실군, 종합청렴도 평가 상승

작년보다 1등급 오른 2등급... 도내 지자체 중 높은 등급 받아

천연기념물 330호로 2급수 이상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

남원시는 생태계 환경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 동물인 '수달'이 광치천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달 1마리가 지난 9일 저녁 향교동 광치천의 곳곳을 헤엄쳐 다니며 물고기를 사냥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은 천연기념물 330호로, 낮에는 휴식하고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다.

천변을 산책하던 시민은 "3년 전부터 2마리의 수달이 하천에서 헤엄치고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종종 띄었는데 이날은 1마리였다"고 전했다.

남원 광치천 상류는 과거 돼지 축사 등 가축시설이 있어 오폐수 방류로 인해 악취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으나 지난 2018년 복원사업을 통해



생태계 환경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 동물인 '수달'이 남원 광치천에서 발견됐다.

생태공원 하천으로 태어났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광치천 뿐만 아니라 남원시를 가로지르는 요천변에서도 수달이 종종 목격되고 있

다"면서 "앞으로도 하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야생동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이 청렴시책의 고강도 추진에 힘입어 청렴도가 상승하면서 도내 지자체 중 높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이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작년보다 1등급 오른 2등급을 받았다.

도내 지자체 중 1등급이 없는 가운데 임실군은 2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사실상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임실군이 올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한 각종 청렴도 향상 시책의 시행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먼저 반부패 청렴의지 확약으로 청렴 규정 구현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을 실시했다.

특히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기

주도형 청렴학습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했다.

반부패 경각심 고취를 위한 강도 높은 감찰과 읍주 운전 근절을 위한 주기적인 문자 발송 등 내·외부 청렴도 향상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청렴도 시책 추진과 함께 공직비리 익명 신고 안내, 민원처리 상황 실시간 안내로 민원인 궁금증 해소를 위한 민원 SMS 문자 서비스 시행,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로 위법·부당사항 시정 등도 강화했다.

특히 군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임실군 클린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청렴도 향상 정책에 주력했다.

심민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청렴 시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여 보다 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농협 순창군지부, '사랑의 생활용품 꾸러미' 후원

순창군이 '사랑의 생활용품 꾸러미'를 드림스타트 가정에 전달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이번 꾸러미는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장경민)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마련한 물품들로, 양말, 라면, 수건, 쇠고기볶음고추장, 비누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군 드림스타트는 이번주까지 후원 받은 물품을 관리 대상 가정인 취약계층 아동 30여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순창군 장경민 농협지부장은 "기회가 닿는 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꾸준한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하고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순창군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관촌면 행복보장협의체, 겨울이불 전달

임실군 관촌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배경환, 박순남)는 10일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30가정에 겨울이불을 전달하며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

박순남 위원장은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며 조그만만 이웃사랑 실천이 올 한해를 따뜻하게 마무리 될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관촌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관촌면장은 "항상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한 박순남 위원장과 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함께 협력하여 행복한 관촌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촌면 행복보장협의체는 이웃돕기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반찬 지원 사업, 김장 김치 나눔 사업, 고추장 나눔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활발히 전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국도 17호선 전주방향으로 차량 통행량 많은 구간 비대면 육안점검

임실군이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건강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9일과 10일에 걸쳐 이틀간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자동차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감안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해 비대면 육안점검으로 실시했으며, 단속지점은 국도 17호선 전주방향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실시했다.

비디오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의 후미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차량의 매연배출정도를 매연 불투명도 판

독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연도 3도 이상 초과관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 차량소유자에게 개선 권고함으로써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임실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56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내년에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올해보다 8억원 많은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임실군 대기질이 더욱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 구매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점등

성탄절 맞아 순창고 사거리 앞 독대마당에 설치

순창군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순창고등학교 사거리 앞 독대마당에 설치해 연말연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높이 10m, 지름 3m 크기로 유동인구가 많은 독대마당에 설치해 군민들에게 나눔과 사랑, 희망의 불빛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세상을 밝힐 예정이다.

독대마당 주변에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설치되어 있어 찾는 이들이 행복한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순창군가족연합회(회장 최영철 목사, 동계교회) 관계자는 "이번 크리스



마스 트리 설치와 점등을 통해서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의 희망찬 새해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남원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및 해외입국 등으로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품은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즉석 식품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637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하였으며, 시에서는 이달에는 월초에 확진자

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도 급증으로 긴급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물품은 지난 8일까지 224가구에 대해 계약업체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달했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유급휴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자가격리

를 충실히 이행한 637가구에 대해 4,300만원을 지원했다.

이환주 시장은 "자가격리자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격리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및 철저한 방역수칙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의무화법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지난 5월부터 모든 차량에 소화기설치가 의무화되어 차량에는 1대 이상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자동차 화재발생 건수는 약 4,888건이다.

특히, 자동차는 차체에 붙은 기름때

나 가연성 전선피복 등으로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화재로 인해 자칫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전용'이라고 표시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종류는 분말소화기, 할로젠화물 소화기, 폼 소화기 등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